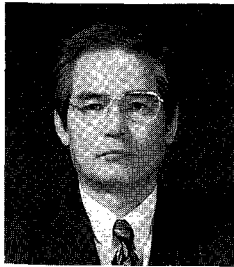


안정된 소비시장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정 호 홍

- 유럽축산 대표
- 전 본회 원주채란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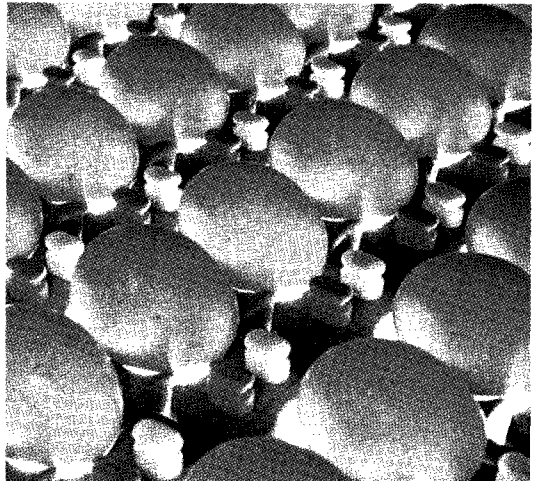
우 리가 사는 오늘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
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외국과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외환 보유액은
바닥이 나고 외화 차입 또한 어려워 대외 채무
변제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의 신용장 개
설도 잘되지 않아 수출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

인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의 신용평가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것이 극한 상황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 당선자의 발빠른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바탕
으로 단기성 채무를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지
원받아 위기 모면은 하였으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 되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93년 말
부터 UR 타결에서 시작하여 WTO 체제 출범
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방의 바람이 불어대더니
작년에 OECD 가입으로 말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되었다고 하나 부담조건과 분담금으로 우
리는 선진대국들에 맞추어 힘겹게 따라가다가
끝내는 대외 채무변제 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우리 경제 전체를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다.

축산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93년 UR 타결에서부터 시작한 어려움에 인
건비는 오르고 3D 현상 그리고 인력난에 시달
려야 했고 환경문제의 대두로 축산 폐수 규제강
화까지 겹쳤으며 또한 가금티푸스 같은 질병이



채란계 농가를 강타하고 있으며, 난가 역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는 유통체제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어려운 극한 이 시기에 이번에는 IMF 경제위기 시대를 맞아 환율인상으로 사료가격 폭등 및 생산 구입마저도 중단될 위기까지 안고 있어 다른 산업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체감이 더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제는 축산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것은 정부와 축산인 소비자 모두 하나가 되어 풀어나갈 과제로 되어 버린 것이다. 축산인은 경영의 합리화로 불요불급한 부문은 개선하여 효율적·절약적·과학적 운영방식을 시급히 도입하고 외국의 선례를 받아서라도 우리 자신이 세계 속의 축산영농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생산물의 특화 계통 출하화 등을 이루어 경영 전반적인 혁신으로 스스로 지구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정부도 또한 전문적 연구개발로 새로운 과학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농가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세제 혜택 및 사료의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안정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면서도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안정적 소비시장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화될 때 문제해결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2001년 축산물 전면 개방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전회회복으로하여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계**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한다.
-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 전 일정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먹여야 한다.